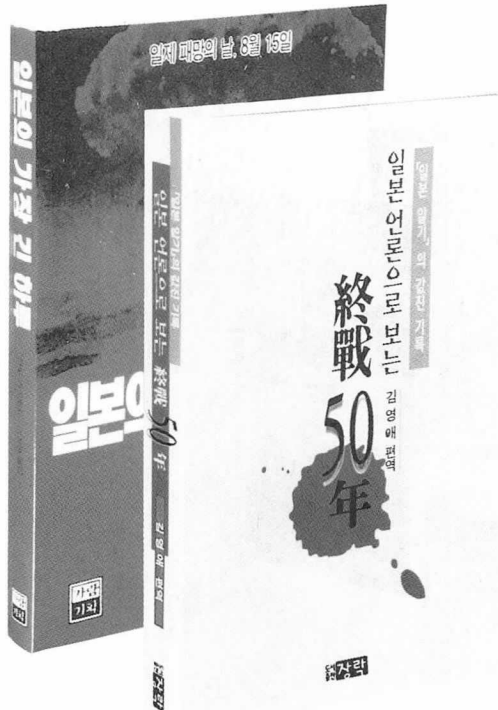


# ‘종전’과 50년 그리고 일본의 참모습

## 《일본의 가장 긴 하루》 《일본언론으로 보는 종전 50년》



《일본의 가장 긴 하루》(가람기획)와 《일본언론으로 보는 종전 50년》(장락)은 일본의 실체를 일본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피는 책이다. 한국에는 광복을, 일본에는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다 준 ‘종전(終戰)’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두 책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일본 바로알기’ 행보의 첫걸음이다.

### 항복 선언했던 날의 긴박한 상황

전쟁피해국 국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공연하게 주요 전범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이며 잇을 만하면 등장하는 망언들, 교과서 왜곡사건,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반응 등 종전 후 일본이 보여주는 갖은 양상들이 어떤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책들은 그 가닥을 잡을 수 있게 한다.

“짐은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황을 깊이 감안, 비상조치로써 시국을 수습하고자 하니, 이에 충성스런 신민에게 고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방송을 통해 항복을 선언했다.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광복을 얻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패배했다. 우리가 기쁨으로 광복절을 경축할 때 일본인들은 이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본의 가장 긴 하루》(한도 가즈토시 지음, 이정현 옮김)는 51년전 ‘바로 이날’ 하루의 긴 기록이다. 일본 천황의 항복연설이 방송으로 나가기 전까지 왕궁과 정계, 군부 등에서 긴박하게 전개됐던 상황을 모두 24장

으로 구성, 생생하게 묘사한다.

관계자의 증언과 각종 문헌 및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종전을 거부한 군부내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 육군대신 및 청년장교들의 항복 자결, 종전방송을 저지하기 위한 쿠데타, 황실의 전통과 천황의 지위를 염려하고 일본의 미래를 고민하는 각료들의 치열한 고민 등은 ‘일본적 애국심’이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날의 ‘일본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일본의 실체를 이해하는 핵심요소다.

### 종전 50주년, 일본의 역사인식

《일본언론으로 보는 종전 50년》(김영애 편역)은 일본 주요 언론들이 지난해 종전

한국에는 광복을, 일본에는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다 준 ‘종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일본 바로알기’ 행보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일본의 가장 긴 하루》와 《일본 언론으로 보는 종전 50년》은 일본인들의 목소리로 그 실체를 알려주고 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기획으로 연재했던 글을 묶은 것이다.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논조가 각기 다른 일본의 주요신문들의 기사를 발췌했는데, 이는 일본인의 의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 더없이 훌륭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모처럼 전진적인 역사인식과 태도를 보여주었던 사회당의 무라야마 총리의 전후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둘러싼 각 신문들의 상이한 입장을 통해 종전후 일본인들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일본언론은 8·15를 어떻게 보는가, 일본 군 속의 전후보상문제, 노동자 미지불 임금문제, 종군위안부 보상문제에 대한 시각도 엿보인

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일부 정치가들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론에 비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침략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원폭의 희생자라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냉전 후 자위대 활동과 일·미안보조약 제정 등 일본이 나아갈 길에 대한 언론들의 모색도 관심있게 읽힌다.

《산케이신문》에 실린 기사 하나가 유독 눈길을 끈다. 한국의 조선총독부 건물해체와 관련한 기사다. 총독부건물과 북악산, 시청의 배치에 대해 국내에 유포된 “일제는 그들의 지배를 과시하기 위해 각각의 건물을 대일본이란 글자가 되도록 디자인했다”는 설에 대한 기자의 논평.

“유치한 이야기라 어쩌면 일제시대에 일본인 어린이들이 자랑거리로 한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일반인은 물론 마스크와 대학교수까지 이 사실을 믿고 있다. 구조선 총독부 건물의 일(日)자는 실제로는 옆으로 누워 있으며 시청 건물의 본(本)자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 박남정 기자

### 《일본의 가장 긴 하루》

한도 가즈토시 지음/이정현 옮김  
가람기획/A5신/288면/7500원

### 《일본언론으로 보는 종전 50년》

김영애 편역  
장락/A5신/478면/8800원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 출판정보

### 구독료 안내(주1회 발행)

6개월 구독시 ▶ 12만원  
12개월 구독시 ▶ 20만원

담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271-0494

FAX. (02)271-0495

### 1. 전국 일간지 출판기자 100여 명과 격일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껏 너댓 종류의 신문스크랩만으로 자료조사를 끝냈다고요? 국내 최초의 종합출판정보자료집 「출판정보」는 전국 60여 개 일간지와 중요 주간지의 출판 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합니다.

### 2. 21세기의 새로운 화폐는 정보입니다

출판인을 위한 유일한 종합정보지 「출판정보」는 기획, 독자시장, 마케팅 흐름, 출판계동향, 신간정보, 지역정보, 해외정보 등 출판에 꼭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전문서비스매체」입니다.

### 3. 무료 서비스는 꼭 필요한 것만을 제공합니다

-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기사검색프로그램과 검색데이터 제공
- 자사의 중복 기사를 따로 스크랩하여 팩스로 전송
- 보관용 바인더 제공과 신간정보 무료 게재

발간형식 : 주1회(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 4·6배판 약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 드립니다.